

번호 18-4

설문조사는 총 379가구(총 803명, 성인 711명과 소아 92명)가 응했으며, 그 중 비금도는 6개 자연부락의 236가구(성인 436명, 소아 67명), 그리고 도초도는 6개 자연부락의 143가구(성인 275명, 소아 25명)가 조사되었다. 인의협신안대우의원은 1999년 7월부터 2000년 1월까지의 입원, 외래 환자 보험청구자료를, 도초면 보건지소는 첫째 방문날짜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연령과 성별, 의료보험의 종류 및 진료비용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둘째 1999년 5월1일부터 6월 17일까지의 외래환자 의료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는 709명으로 남자가 326명(46.0 %), 여자가 383명(54.0 %)이었으며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40 % 이상으로, 이는 도서지역인구의 노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직업구분으로 보면, 도서지역이기는 하나 농업인구가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여러 직업군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의료보험료는 평균 1만 6천원 정도 부담하고 있으며, 음주 및 흡연인구는 예상보다 적었다.

3-2.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별 유병율을 통해 살펴보면 관절염(147명, 20.7 %), 요통(78명, 11.0 %), 고혈압(76명, 10.7 %), 위(십이지장)염, 궤양(75명, 10.6 %)등이 비교적 높은 유병율을 보이는 질환이었다. 중증질환인 뇌, 심혈관질환을 보면 협심증, 심근경색(14명, 2.0 %), 심장질환(47명, 6.6%), 중풍(11명, 1.6 %)등이 있었으며, 결핵유병율은 0.7 %(5명)이었다. 당뇨는 3.2 %(23명)이었으며 만성간염, 간경화는 4.2 %(30명)이었다.

3-3. 조사대상자의 의료이용 행태조사

가족중에 아픈사람이 생겼을 경우 제일먼저 이용하는 의료기관(약국포함)으로는 대우의원이 전체 응답자의 54.0 %(383명)이었으며, 약국(190명, 26.8 %), 보건지소(117명, 16.5 %) 순이었다. 응답자가 아플 때 주로 찾아가는 단골의사를 보면 대우의원이 181명(25.5 %), 보건지소 77명(10.9 %), 현대의원이 8명(1.1 %)이었으며 육지의 병원이 80명(11.3 %)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50.5 %(358명)이 단골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

3-4. 인의협신안대우의원의 입원, 외래환자 이용현황

1) 입원환자의 임상과별 분류 및 월별 분포

입원환자의 진단명에 따라 임상과별로 분류하면, 대부분의 환자가 내과계로 전체 환자의 75.0 %인 260명이었으며 소아환자는 6명 (1.8 %)이었다.

2) 외래환자의 임상과별 분류 및 월별 분포

외래 방문자수는 12157(방문건수)명이나, 외래진료시 진단된 병명의 수는 17862로 내원 외래 환자 1인당 평균 1.5건의 질병유병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임상과를 분류하면 전체 진단명의 56.0 %가 내과계열이었으며 그 다음은 정형외과 질환 25.9 %, 피부과 8.4 % 순이었다.

4. 고찰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인 요건은 기존의 일차보건의료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지리적인 제한과 시간적 접근에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지역에서도 공공의료기능의 강화를 바탕으로 보건기관의 공급확대와 양질의 인력충원, 병원선 운영의 개선 및 후송체계의 정비, 대체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어진다.